

2021 Fall Aalto EMBA

**A Study on the Sustainable Growth Strategy
of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Based on ESG Management**
(Focusing on the case of KB Financial Group)

Kim, Jung kuk

Executive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December 2022

2021 Fall Aalto EMBA

국내외 ESG 사례를 기반으로 한 국내기업의
지속가능 성장 전략에 관한 연구
(KB금융그룹 사례를 중심으로)

김 정 국

Executive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December 2022

Executive Summary (English)

ESG stands for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which are elements of a company's non-financial statements, and evaluates how much the company contributes to customers, shareholders, and employees, fulfilling its environmental responsibilities, and whether the governance structure is transparent.

It is an indicator for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that not only pursues financial gains, but also invests in companies that fulfill their ethical responsibilities.

Therefore, the higher the ESG evaluation, the more risk-resistant the company is, rather than a company with a good social reputation.

Through this, we will have the competitiveness to sufficiently cope with crisis situations such as the COVID-19 crisis.

Organizational paradigms are changing based on ESG in many areas such as finance, business-to-business transactions, and the public sector. These days, we realize every day that we need more ESG due to COVID-19.

Companies operate according to the basic principle of analyzing the market environment and formulating business strategies.

Many customers pursue social and environmental values like this, but if a company does not change its business strategy, customers will turn away from such a company.

In order to catch up with the worldwide interest in ESG, Korea is also making company-wide efforts from the government to companies. can't prepare The smaller the company, the more difficult it is to prepare for ESG. Therefore, in order to vitalize ESG management of SMEs, we will analyze ESG cases of governments and companies around the world to see how each entity perceives ESG.

In the case of SMEs, they are underestimated in ESG evaluation compared to groups belonging to the financial sector or holding companies, including mid-sized and large companies, showing that it is difficult to lead positive changes in the value of SMEs under the ESG environment. It is judged that this is because large corporations can improve normal corporate value and supply chain efficiency through their own ESG activities, but SMEs do not.

In this study, through a SWOT analysis based on the cases of domestic and foreign actors, we will examine the ESG environment of Korea, especially the ESG environment of Korean companies, and learn about the ESG sustainable growth strategy of companies.

Executive Summary (Korean)

ESG는 기업의 비 재무재표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고객 및 주주, 직원에게 얼마나 기여하는가, 환경에 책임을 다하는가, 지배구조는 투명한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단순히 재무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투자’를 위한 지표이다.

따라서 ESG평가가 높을수록 단순히 사회적 평판이 좋은 기업이라기보다, 리스크에 강한 기업이라고 외부시장에서는 판단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금융, 기업 간 거래, 공공부문 등 많은 영역에서 ESG를 기준으로 조직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ESG가 더 필요하게 되었음을 매일 깨닫는 요즘이다.

기업은 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사업전략을 짚는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많은 고객들이 이렇게 사회·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기업이 경영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고객은 그런 기업을 외면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ESG에 대한 관심을 따라잡기 위해 우리나라도 정부부터 기업에 걸친 전사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타 국가와 비교하여 비교적 늦은 시점에 ESG를 인식하여 아직까지 모든 기업이 ESG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작을수록 ESG와 관련한 준비를 어려워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ESG 경영활성화를 위해 세계 각국에 있는 정부와 기업들의 ESG사례를 분석하여 각 주체들이 ESG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기업·대기업을 포함한 지주회사나 금융업종에 속한 그룹보다 ESG 평가에서 저평가를 받아 ESG 환경 아래 중소기업의 가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힘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ESG 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기업가치와 공급사슬의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주체들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SWOT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ESG 환경,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의 ESG 환경을 살펴보고 기업의 ESG 지속가능 성장전략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목 차

I. 서론(Introduction)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2
II. 환경 분석 연구(Environmental Analysis Research)	3
1. 환경위기에 직면한 인류	3
2. 사회적 책임기업으로 성장사례	8
1)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다양한 사회과제	8
2)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CSV	9
3) 사회적 책임사업으로 성장 추구	10
3. 국내외 금융기관의 ESG 경영 환경	11
III. 사례 분석(Case Analysis)	15
1. 해외 ESG 사례	15
1) 유럽	15
2) 미국	15
3) 중국	16
2. 국내 ESG 사례	17
1) 정부	17
2) 대기업	18
3) 중소기업	20
3. 사례분석 결과 SWOT 분석	21
IV. 전략적 제언(Strategic Suggestion)	23
1. SWOT 분석 기반의 전략적 제언	23
2.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접근방법론	24
3. 국내 기업환경에 대한 제언	27
V. 결론 및 시사점(Conclusion & Implications)	31
1. 결론	31
2. 시사점	33
참고문헌(References)	35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36

표목차

<표1> 기후관련 다양한 위험	5
<표2> RE 100의 가입조건	7
<표3> 글로벌 기업의 이사회 다양성 추진 방향	27
<표4> 글로벌 투자기관이 중시하는 ESG항목	29
<표5> 주요 ESG 평가기관의 지배구조 평가 항목	30

I. 서론

1. 연구 배경

ESG경영의 글로벌 조류가 한국에도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ESG 경영은 환경 (E), 사회 (S), 지배구조(G), 요소를 기업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단기적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현재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 등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ESG 대책을 말하고 있다. ESG 대응은 그만큼 절박하고 긴급한 시대적 요청이다. ESG 경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이다.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담당하는 금융기관도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금융기관은 탈석탄 금융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선언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ESG 채권을 발행하며 사회적 책임 달성과 동시에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ESG는 규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ESG 경영을 실천하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투자자들 사이에서 좋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 유리하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ESG 투자 방침을 세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이미 투자지표로 ESG 경영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ESG 경영은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은행들은 이미 ESG 경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ESG 경영을 촉진하면 거래처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의 기업 경영 트렌드는 이해관계자 경영으로 전환 되어 가는 경향이다. 1997년 이후 지속된 주주우선 원칙을 대신하여 소비자, 종업원, 거래업체,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헌신하는 경향인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기존의 기업경영의 가치를 “각 기업이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공유하는 기본적인 헌신” 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기업은 부를 창출하는 존재이고 주주, 환경, 사회적 책임, 우수한 지배구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업적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제공을 기업의 목적, 즉 사회적 존재의의의 근간으로 설정한 것이다.

기관투자자는 투자기업들에게 환경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세계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적극적으로 기업의 ESG 경영을 촉구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 code) 개정하여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경영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또 기업들에게 주주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응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2. 연구 목적

올해는 국내 경제계에서 ESG 경영의 원년이라 말할 수 있다.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올해 들어 잇따라 ESG 경영을 선언하고 있다. ESG 경영에 관한 뜨거운 관심은 통계상 잘 드러나고 있다.

전경련 조사(2021년4월)에 따르면, 한국 500대 기업의 경영자 66.3%는 ESG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 절반의 기업이 ESG 위원회와 실무 조직을 이미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ESG 위원회가 형식적인 홍보용 조직에 그치지 않고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실질적인 사령탑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ESG 경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ESG 경영의 실행을 감독하는 중대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보고서 발행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국내 주요 그룹은 연초에 ESG 경영을 선언하고, ESG 추진조직을 만들며 구체적인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주로 계열사의 업종에 따라 환경과 사회 분야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올해 초 전경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ESG 경영 수준은 선진국의 70% 정도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삼성전자, SK그룹, LG화학, KB금융이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이 자료로 보면 우리나라의 ESG 경영은 삼성, SK, LG 등 이 선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국내기업들의 준비과정과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해외 기업들과 분석하고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프로젝트의 연구 및 분석은 문헌 연구와 매스컴 보도자료 및 사례조사를 병행하였다. 국내 환경 분석은 ‘한국ESG연구원’ 자료와 매일경제 신문 등 국내 매스컴을 참조하였고, 해외 글로벌 환경 분석 및 KB금융지주 사례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료와 ‘2020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참조하였다. 이밖에 매일경제 신문 등 다수의 국내외 매스컴에 실린 보고서를 인용하고 참조하였으며, 특히 KB금융지주의 사례인 경우 본인이 근무하면서 경험하고 실행하였던 사례를 직접 기술하였다.

또한 KB금융그룹 사례와 해외 주요 기관의 사례연구를 통해 지속가능 성장전략의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II. 환경 분석 연구

1. 환경위기에 직면한 인류

산업혁명 이후 수많은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각각의 국가와 지역, 기업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꾸준히 발전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전 세계는 동시에 변화의 폭풍을 만났다.

팬데믹의 시기가 길어지자 각 국가마다 장기화된 위기에 맞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기업들 역시 유래 없는 실적 변화를 겪으며, 어떤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예전부터 있었으나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지속가능성’을 해결책으로 꺼내 들었다. 그동안 지속가능성은 기업경영의 ‘옵션’ 정도로만 여겨지거나 기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축소되었지만, 이제는 전략적 경영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핵심으로 재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되었고, 이제는 ‘ESG’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CSR이 가진 원래 개념보다 축소되어 전달되는 한계를 보였다.

지속가능경영은 재무적 관점에서 ‘경제성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비재무적 관점에서 ‘사회’와 ‘환경’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3가지 요소를 강조하는 경영전략이다. 다시 말해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환경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그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며 동시에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는 전략을 말한다.

지속가능경영은 그 범위가 넓은데, 이는 우리가 지난 몇 년간 한 번쯤은 들어봤던 용어인 투명경영, 윤리경영, 준법경영 등의 개념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또 지속가능경영은 CSR과 같은 의미로 통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CSR은 사회적 책임이란 개념을 말하고, 지속가능경영은 그것을 경영전략에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지속가능경영을 경영전략으로 채택한 기업은 1년 동안 수행한 결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정리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등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특히 지표를 중심으로 수치화된 데이터는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이 ESG 측면에서 매년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직관적인 기준이 된다. 따라서 ESG 데이터가 해마다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해당회사가 ESG 리스크가 크게 부각될 것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된다.

인류는 지구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살아간다. 지구 밖에서 태양광 에너지만 들어오고, 우주로 나가는 것은 열방사 뿐이다. 어디에서 새로운 물이 만들어지지 않고 지구상의 물질이 형태를 바꾸어 순환한다.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구에서 추출하고 가공한 후 소비하고 다른 형태로, 대부분 폐기물로 지구에 돌리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석유를 추출하고 태워서 이산화탄소로 돌리는 것도 그 중의 하나다.

자원을 지구에서 추출하여 오염물로 지구에 배출할 때까지를 스루풋(throughput) 이라고 말한다. 스루풋에는 지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다.

ESG경영의 글로벌 조류가 우리나라에도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기업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단기적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영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 등 우리사회 모든 곳에서 ESG 대책을 거론하고 있다. 그만큼 절박하고 긴급한 시대적 요청이 된 것이다.

ESG경영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한국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도 있고, 뒤쳐져서 무너질 수도 있다. 한국기업은 ESG를 규제가 아닌 새로운 사업창출 기회로 생각하고 경영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이제 투자자는 단기 재무적 측면의 수익성만으로 투자를 판단하지 않고, 기업성장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를 무시한 기업은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단순한 이윤추구형 경영 외에도 새로운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경영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과 사회적 공헌에 따라 기업가치가 달라질수 있다. 기업이 사회적 과제를 경영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외부에 결코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 아닌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장기적으로 이익을 늘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다.

최근의 ESG투자나 전략적 CSR (사회적 책임)와 같은 접근도 프리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사고의 틀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에는 주주, 채권자, 임직원, 소비자, 협력업체, 지역공동체 등이 포함된다.

프리먼 교수는 “양심적인 책임있는 기업경영이 생존의 전제조건이자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며 “목적, 이해관계자, 윤리, 가치, 사회문제 해결 등이 이익만큼 중요한 개념이 됐으며, 앞으로 이 모든 개념이 이익 창출과 연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위대한 기업을 세우는 비법은 서로 화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를 같은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기술에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 ESG 경영확산과 더불어 이해관계자 중심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현실적으로 재무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충돌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장기적인 기업가치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등이 필요해 보인다.

ESG경영은 이익 극대화가 아닌 회사, 종업원, 주주, 지역사회, 비즈니스 파트너 모두 만족하는 이익최적화이며, ESG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존재하지만 그들을 설득하고 경영에 동참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기업의 부가가치는 한 기업의 역량이 아닌 기업생태계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도록 풍토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에 기업 생태계가 지나친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집단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경계하여 할 것이다.

최근ESG가 기업 경영 ,투자에 대한 비재무적 성과 판단의 필수 기준으로 주목받으면서 국내외 전문기관은 다양한 진단,평가 방안을 내놓고 있다.기업들은 국가, 산업별 특성, 경영현장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 기준을 마련해야겠다.

사회적 필요을 수익성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충족할 수 있을 때 자본주의의 마법이 실현된다고 했다.도덕 교과서에 갇힌 기업들의 ESG 활동은 공허하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제품과 서비스의 기능적 혁신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시대다.기업들이 ESG를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수 없는 차별적 경쟁요소로 삼아 새로운 비즈니스의 돌파구를 열어보면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시장진출은 사회에도 기업에도 이롭다.

지난달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 (COP26) 에서 200여개 참가국들은 2040년까지 무공해 자동차 판매를 100% 달성하기로 합의 했다. 이 협약에는 볼보, 다임러, 제너럴& 렌드로버 등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도 동참했다. 수익만을 추구할 것 같은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적극참여 하겠다고 나선 것은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성을 향해 전환되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

<표1> 기후관련 다양한 위험

이행 위험	시장위험	고객니즈 변화로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상품 수요의 감소
	정책과 법적 위험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후관련 소송청구의 증가
	테크놀로지 위험	재생에너지, 축전지, 탄소회수·저축기술의 진행·기술 개발과 사용이 늦어짐
	평판위험	화석화력발전예 투자가 NGO에게 비판을 받음
물리적 위험	만성적 위험	해면상승으로 해안부 부동산의 자산가치 하락
	급성적 위험	태풍과 홍수로 재해가 빈발하고, 생산공장의 가동정지 기간이 늘어남

자료 : TCFD 자료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경영학계에 처음 제시한 경영학자 존 엘링턴은 ESG경영이 대세로 떠오르는 현 시점에 미래 자본주의 모델을 제시 하였다. 비즈니스위크는 2004년 엘링턴을 가리켜 " 30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동을 이끌어 온 주역 " 이라고 표현했다. 지속 가능경영 분야에서 그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표적인 예가 ESG 경영이다. 지구는 기후변화와 쓰레기로 몸살만 앓다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인류는 결국 해법을 도출해 낼 것인데 여기에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게 그린스완적 사고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론머스크는 그야말로 그린스완의 화신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는 세계적 완성차 업체들이 기존 휘발유, 디젤차와 미래 자동차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통해 자동차 업계 판도를 뒤집어 놓았다.

최근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ESG 경영 확산을 목표로 'ESG 펀드' 조성에 함께 나섰다. 통신3사는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ESG우수 스타트업 지원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ESG 펀드 조성을 위해 한 분야의 대표기업들이 힘을 모은 것은 국내 최초 사례이다. 이처럼 출자금 전체를 ESG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친환경, 저탄소, 공정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관련 기술을 발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3사의 ESG펀드는 3사가 각각 100억원을 출자하는 등 4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탄소중립등 ESG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들의 육성을 위한 투자에 전액 사용된다고 한다. ESG 펀드와 각 사가 운영중인 육성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유망한 혁신 벤처 업체를 지원하고 각 사의 ICT와도 연계하는 선순환 육성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03년 여름에 열파가 유럽을 급습했다. 유럽대륙에 금세기 최고의 자연재해가 온 것이었다. 130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수만명이 희생되었다. 그 여름 어느 시점에서 파리의 평균 최고 온도는 평상시 보다 약 15도나 높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추정에 따르면, 2030년에 기후변화에 관련된 건강피해로 지구 전체에서 연간 20억-4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 1억명의 사람이 추가적으로 빈곤에 빠진다는 것이다. 2030년부터 2050년까지 기후변화로 매년 25만명이 추가적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가뭄과 물 공급이 단절되면 식료품 생산이 영향을 받고, 기후변화로 분쟁 위험도 높아진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특히 내전 위험이 높고, 현재의 기준으로 온난화가 진행된다면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39만3,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기후변화 위기는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반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점도 심각하다. 또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경제적 자원에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국제 NGO 옥스팜(Oxfam)과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에 따르면, 1990~2015년까지 연간 배출량은 60% 증가하고 누적된 탄소배출량은 2배가 늘었다. 세계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최고

부유층이 누적 탄소 배출량의 52%에 책임이 있었다. 또 지난 25년 동안에 지구의 탄소 예산 중 31%를 고갈시켰다. 최고 부유층 5%가 탄소배출 전체 증가분의 37%에 책임이 있었고 최고 부유층 1%의 전체 탄소배출 증가량은 최고 빈곤층의 3배가 되었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기후 위기 와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하는 데 중점을 뒀야 하는 이유이다.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협정은 기후협정에 관한 국제사회의 대책을 크게 전환하는 역사적인 합의였다. 기후 변화에 관한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국제구조를 규정한 파리협정이 채택된 것이다. 국제연합 기후변화구조 조약 제21회 당사국총회(COP21)에서 온실 효과 가스의 2대 배출국가인 미국과 중국, EU가 비준하여 파리협정은 예상보다 일찍발효되었다. 온실효과 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국제적 협정이었다.

사실, 1997년 12월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대해 온실효과 가스 총배출량의 배출감소 목표를 할당하고, 그 달성을 의무화하였다. 교토의정서도 파리협정과 동일하게 획기적인 합의 였다. 그러나 탄소배출 감소량의 목표는 1990년에 비해 5%정도만 줄어들어 기후변화의 억제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 당시 세계최대의 온실효과 가스배출국이었던 미국이 이탈하고, 선진국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실효성이 없는 구조였다.

지금은 1990년대 후반과 달리 국제적 상황이 크게 변화였다.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온실효과 가스배출량을 감소하려면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협력하는 국제구조가 필요하다.

이에 파리협정은 세계의 모든 국가에 온실효과 가스 배출감소 대책을 의무화 하였다. 2020년 이후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체약국은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감소 목표를 자주적으로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한 배출감소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달성 정도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5년마다 세계 전체의 진도를 평가하는 사이클을 반복한다.

<표2> RE 100의 가입조건

대상기업	-글로벌 또는 국내에서 높은 인지도와 신뢰도 -주요 다국적 기업(포춘 100 또는 이에 상당) -전력소비량이 클 것(연간 100GWh 이상) -RE100의 목적에 기여하고, 어떤 특징과 영향력을 가질 것
재생에너지 전력의 정의	-태양광과 태양열,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재생 에너지에서 나온 전력임을 추적할 수 있음
증서의 발생시기	-전력의 소비기간과 가능한 가까운 시기에 발생·상각되는 증서를 사용할 것
시간	-2050년까지 모든 소비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할 것 -2020년 30%, 2030년 60%, 2040년 90%의 중간목표를 설정할 것 -국가의 재생에너지 비율의 목표,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정비하기 위해 정책에 적극 관여하고, 이를 공표할 것

자료 : RE 100 홈페이지

교토의정서는 배출감소 목표의 달성을 평가하는 대상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렇게 교토의정서에는 약속기간마다 운용규정에 관한 교섭이 필요하다. 이런 규정 설정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었다. 반면에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와 같이 한정된 약속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5년간의 사이클을 2020년 이후 영구적으로 반복해 나간다.

기후변화 문제를 교섭할 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극심하게 대립하였다. 기후변화 대책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 배출감소 능력을 요구하는 선진국에 대해 개발도상국은 역사적으로 온실 효과 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한 선진국의 솔선하는 행동과 약속을 요구하였다. 국제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파리 협정이 합의에 도달한 것은 개발도상국의 관심 사항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이다. 파리협정은 기후 변동에 따른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실시,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책실시를 위한 자금지원, 기술이전, 능력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파리 협정까지는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소할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14년에 기온상승을 2도 미만으로 억제하려면 금세기 말까지 인위적인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파리협정은 세계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전과 비교하여 2도보다 낮게 억제하는 2도를 목표로 정하고, 금세기 후반에는 실질적으로 제로로 한다고 하였다.

2. 사회적 책임기업으로 성장사례

1)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다양한 사회과제

환경 이슈 못지 않게 중요한 주제 “사회” 또는 “사회적 책임” 이라고 불리는 이슈다.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래관행, 종업원의 고용환경, 제품의 안정성, 소비자와 관계, 지역사회와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과제다. 이처럼 사회적 과제(S)는 환경(E)과 지배구조(G)에 비해 정의 하기가 광범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환경과 지배구조 이슈에 비해 사회는 정량적 자료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핵심평가항목도 설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앞으로 투자자는 기업과 대화를 통해 투자판단 자료를 충실히 공시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환경과 사회분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다.

앞으로 사회분야의 정보를 충실히 공시한다면 투자자와 대화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찾고, 투자자에게 매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기업은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과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 정보를 충실히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의 사례를 보면, 환경과 사회과제의 대책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공개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

현재 ESG 정보를 공시할 때 글로벌 기업은 ‘GRI 표준(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 를 가장 많이 참조하고 있다. GRI 표준이 제시하는 사회분야의 항목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항목은 노동자 고용과 노사관계 문제다. 구체적으로 노동시간과 임금문제, 종업원의 처우와 복리후생, 인재육성, 노동안전 위생, 다양성과 남녀간 격차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인권위험의 문제다. 구체적으로 아동노동, 강제노동,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 비차별, 보안관행 등이다.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에서 인권위험, 원재료의 공급업체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인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권문제를 들 수 있다.

셋째, 고객의 안전위생, 고객플라이버시, 고객만족도 등의 소비자 과세,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제품가격과 패키지, 마케팅과 광고, 사회경제 측면의 컴플라이언스 등이다.

넷째, 지역커뮤니티에 참여하여 공헌하는 활동이 있다. 경제와 환경, 사회 문화분야에서 기업과 지역사회의 교류는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발전과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각종 재해복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컴플라이언스와 공정한 사업관행, 고충처리 등의 대응이다. 부패방지, 공급자의 사회적 평가, 조달관행이 해당한다.

2)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CSV (Creating Shared Value)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주주와 경영자의 소유물보다는 사회적 존재로서 그 영향력이 커진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이 커지면 주주와 투자자 외에 종업원, 고객과 거래처,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당연히 경영자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고는 단순히 법률준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니즈를 가치창조 또는 시장창조로 연결하는 발전적 의미가 들어있다. 즉 기업은 사업상 적극적인 정보공시와 설명책임으로 사회에 책임있는 존재로서 그 모습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기업은 경영전략 차원에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추진하지 않았다. CSR활동이 기업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인정하면서 중요한 경영전략보다 하나의 이벤트 정도로 생각했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기업의 CSR활동은 사업활동과 거리가 멀었다. 사업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기 보다는 본업 이외에서 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이었다.

단순히 다른 회사와 같이 세상에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CSR활동을 한다면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렵다. 본래의 목적과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외국기업도 1990년대까지는 ‘수동적CSR’ 활동에 치중하였다.

그리하여 단순한 CSR활동보다 본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문제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경영전략을 펼쳐야 될 것이다. 기업은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여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공하는 공생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사회적 과제에 대처하여 성공하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에 경제적 가치도 창출된다. 사회적 가치란 환경과 사회측면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하고, 경제적 가치란 기업의 지속적 생존에 필요한 이윤이다. 결국 공유가치 창조는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기업의 이익도 실현하는 사업모델이다. 기존의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한 사고에서 크게 탈피하고 있다.

이전에 기업은 환경과 사회문제를 기업활동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기업활동에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사회의 이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환경대책 (사회적 이익확보)을 단순히 기업에 추가비용만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포용적 자본시장이라는 말이 있다. 오로지 재무자본에 중점을 두지 않고, 경제, 환경,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다. 만일 다국적 기업이 사업에 관련된 중요한 지속가능성 과제를 기업의 경영전략에 포함한다면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과를 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활의 질도 높아지면 기업은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세계는 환경변화와 다양한 사회문제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미래 세계는 지금까지의 연장선상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환경문제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때보다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3) 사회적 책임사업으로 성장 추구

컨설팅 회사 액센츄어(Accenture)는 기업의 CSR 활동의 발전 단계를 세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법률준수&CSR단계로,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법률을 준수하면서 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공헌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의 수익을 높이는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두 번째 단계는 ‘성과와 공유가치’ 단계로 기업경영에서 ESG를 중시한다. 기업이 사회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고 있는지, 이를 위한 지배구조가 기능하고 있는지 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ESG 요소를 배려하는 사업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받고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한다는 사고다.

세 번째 단계는 '리더십과 사회적 임팩트' 단계로, 기업경영에서 '사회적 책임사업'을 중시한다. 사회적 책임사업이란 장기적인 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흥미와 관심을 핵심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의 관심사를 비즈니스에 융합하는 전략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생존하고 확실히 이익을 실현하는 대책이다.

시장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은 사회과제의 해결을 비즈니스로 연계하는 발상이 필요하다. 주주이익이 중시되는 사업구조뿐만 아니라 사회과제의 해결을 경영의 핵심요소로 포함하는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시대가 되었다. 컨설팅회사 PWC는 2000년 이후 기업활동은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사회과제 해결을 통해 혁신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기업은 환경과 사회속에서 활동하며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환경과 사회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영위험을 줄이고, 사업기회를 포착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 선진기업은 사회과제의 해결을 사업기회로 보고 있다. 사회과제에서 지속적인 성장기회를 찾고 새로운 경영전략을 짜고 있다. 단순한 CSR발상을 넘어 사회과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사업모델을 재구축하고 있다. 즉 사회해결이 본업이라는 차원에서 발전하고 있다.

3. 국내외 금융기관의 ESG 경영 환경

신한금융그룹은 탈석탄 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ESG 기획팀을 신설하여 ESG 경영과 함께 친환경 경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으며, 앞으로 국내외 금융기관과 적도 원칙 관리체계를 공유해나갈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도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탈석탄금융을 선언했다.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와 관련된 사업을 선별하여 금융을 지원하고, 올해 적도원칙에 가입할 예정이다. 또한 그룹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체제를 개발하여 환경과 관련된 ESG 금융실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은 '2019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했고, 앞으로 기후변화 위험을 분석하고 보고서에 위험관리 시나리오 계획을 포함할 예정이다.

KB금융그룹은 2020년 'ESG 그린웨이브'라는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전 계열사가 'ESG 이행원칙'을 선언하고, ESG 위원회를 설립했다. 그룹 13개 계열사의 ESG 담당부서가 참여하여 선진국 은행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참고하고,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2021년 4월 ESG 금융원칙을 제정했다. 금융을 통해 ESG 위험을 관리하고, 환경과 사회적 과제 해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ESG 금융원칙을 활용하여 수신과 여신, 채권, 자산운용 등 각 사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하고, 운용성과를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ESG 경영위원회, 계열 금융회사의 CEO로 구성된 그룹ESG 경영협의회를 통해 ESG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신설된 ESG 전담조직과 함께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금융기관은 저탄소사회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금융산업에서 탄소관련 투자자산의 문제점, 금융시스템에 노출된 기후관련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섹터별 기후 관련 자산공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대출, 금융중개, 투자, 보험인수 활동에서 기후관련 문제의 영향을 검토하도록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회사는 사업활동에서 CDP 기후변화 질의서에 답변할 필요가 있다.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사는 답변할 때 고려할 정보종류를 명확히 제시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이 나와 있다.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중 에 기후변화가 금융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이행 위험과 물리적 위험, 그리고 기회와 위험의 재무적 영향을 파악하고, 정보공시를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공시내용에는 2도 목표의 경로에 따라 시나리오 해석을 하고 있는지, 기후관련 과제가 전략과 재무계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시하고 있는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파리협정의 장래 기후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조직의 전략을 설명하려면 장기적 시나리오의 플래닝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고서에 근거한공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프랑스의 TCFD 의 대책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장기업, 은행, 기관투자자가 연차 보고서에 기후 변화 위험에 관한 정보공시를 의무화 하였다. 금융 당국은 2023년까지 영국에 있는 비상장대기업으로 공시대상을 확대하고, 2025년에는 경제 전체에서 완전 의무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를 포함한 기관투자자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과 석유연료 산업에서 자금을 회수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투자금 회수란 화석연료 산업과 관련된 자산을 ‘좌초자산’ 으로 설정하고 투자나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또한 기관투자자는 세계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갖기위해 세계규모의 플랫폼 ‘세계투자자연합’ 을 조직하는 등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형 기관투자자 (은행, 증권, 보험사, 자산운용사)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소극적이고 지나치게 당장의 이익을 쫓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 받았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다. 2020년 12월 전체 운용자산이 9조 달러가 넘는 30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2050년 탄소제로 경제를 달성키위해 ‘탄소중립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 를 결성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표3> 국내 금융기관의 ESG 경영 환경

금융기관	ESG 경영 추진 내용
신한금융	-탈석탄금융 추진, 적도원칙 가입, TCFD지지 선언 -전략기획부에 ESG 기획팀 신설 -ESG 경영 우수기업과 협력사에 금리우대 혜택 제공
하나금융	-‘넥스트 2030’경영원칙 선언, ESG 금융추진 -2021년 환경사회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적도원칙 가입예정)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생
우리금융	-ESG 경영위원회, ESG 경영협의회 설치 -그룹 ESG 금융원칙을 제정하여 ESG 위험관리 체계 구축 -2021년 내 ESG 비전과 세부전략 발표예정
KB금융	-탈석탄금융 선언, ‘KB그린웨이 2030’추진(ESG 금융 확대) -‘RE 100’ 가입 및 2050탄소중립 실현
농협	-ESG 경영계획 발표 및 탈석탄금융 공식화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위원회’, ‘ESG 전략협의회’ 신설 -그린임팩트 금융과 농업임팩트 금융 추진
IBK은행	-ESG 전담팀, ESG 위원회 설립, 국제표준 이니셔티브 가입 -ESG 캠페인(나무심기) 추진
삼성화재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국제인증취득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월지수에 편입 -UN지속가능보험원칙(PSI)에 가입 -ESG 투자 가이드라인과 ESG 연라이팅 가이드라인을 수립
삼성자산운용	-탈석탄금융 선언 TCFD서포터즈에 가입 -친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 및 ESG 펀드 출시
KB손해보험	-보험서비스 전반에 페이퍼리스 체계 구축
삼성생명	-이사회내 ESG 위원회 설립
한화생명	-지속가능위원회 신설(비재무 리스크 관리) -그린오피스 구축(배출되는 온실효과 가스의 체계적 관리)
미래에셋대우	-ESG 위원회 설립(ESG 관련 정책의 총괄)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산하에 ESG 연구소 설립
우리카드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규격 ISO14001 획득 -ESG 그린선포식 개최
삼성카드	-지속가능위원회, ESG 사무국 설립, ESG 채권 발행(1,000억원 규모) -국제규격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출간

자료 : 각종 미디어 보도자료

NGO활동도 무시할 수 없다. 환경과 인권문제에 관해 활발하게 국제적 활동을하는 NGO는 감시나 협동방식으로 사회과제를 해결하고 있다. 서로간에 제휴를 통해 기업에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환경과 사회분야에서 NGO와 기관투자자가 중층적으로 서로 관여하면서 기업에 영향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지구의 환경대책에 글로벌 기업도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등 글로벌 기업인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한 조직 ‘에너지돌파구연합’을 결성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빌게이츠외에 저명한 글로벌기업의 큰 손들은 바이오연료, 탄소저축 기술, 풍력터빈등 청정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45개의 스타트업에 출자했다. 투자자외에 학자와 기업가, 은행원 등을 팀에 참여시켜 새로운 기술의 실현가능성과 잠재력을 판단하기도 한다.

금융분야에서 기업의 환경대책을 투자의 판단요소로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확대되고 있다. 기관투자자와 금융기관은 인게이지먼트와 투자자금 회수를 통해 기업의 탄소배출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금 회수만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수 없다. 기후변화대책을 위한 설비투자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탈탄소에 대응한 시설투자과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ESG투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금융 측면에서 그린 파이낸스를 추진하여 탈탄소화 대책으로 충분히 자금이 흡수될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기업은 사업혁신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추구하고 유연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 탈탄소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국내외 제휴를 포함한 명확한 추진체제의 구축, 대담한 정책을 수립하고 경영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다행스럽게 최근 이러한 기후변화 대책의 이노베이션이 추진되고 있다. 파리협정에 따라 그린 에너지 분야의 연구 개발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Ⅲ. 사례분석

1. 해외 ESG 사례

1) 유럽

유럽은 ESG 활동 이전부터 탄소세와 같은 환경적 측면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한 연합이기도 하다. 때문에 ESG 활동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가장 체계적이고 빠른 수준의 대응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유럽은 연합차원에서의 적극적인 ESG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유럽은 현재 ESG관련하여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21)에 따르면 EU는 ESG에 관한 기업 의무를 강화하는 법제 관련 정책으로 금융기관 투자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SFDR)', 기업활동의 사회·환경 영향을 비재무제표로 공개하는 '비재무정보보고 지침(NFRD)',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분류체계 규정(Taxonomy)', 기업에 공급망 전체의 환경·인권 보호 현황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 실사 제도(Due diligence)' 등이 있다.

유럽은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 환경에서 사회 부분까지 전 범위를 아우르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독일의 알리안츠의 ESG 경영사례가 있다. 알리안츠는 1890년 2월 5일에 세워진 글로벌 기업이다. 알리안츠는 EU의 대표적 기업답게 2002년부터 지속가능성 관련 웹페이지 개설 후 지속적인 보고서를 발간하며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알리안츠는 ESG 경영 중 환경 중 기후변화 완화, 지구온난화 해결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어 향후 5년간 탄소배출량을 29%까지 감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한편, 2018년 과학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cience-Based Targets Initiative)에 참여하여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책 수립하는 등 환경 부분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사회(Social) 부분의 활동인 기업시민 프로그램(Corporate Citizenship Program)을 통해 미래 아이들에게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Governance) 부분에서는 2017년부터 세금 투명성 보고서(Tax Transparency Report)발간, 매출과 수입세금 등을 공개하는 등 환경 위주의 활동만이 아닌 사회(S)와 지배구조(G)부분에서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미국

미국은 바이든 출범에 따라 파리기후협약 재가입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청정에너지 투자(약 2조 달러) 등 환경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노선을 선택했다. Kotra(2021)에 따르면 미국노동부(DOL)는 ESG 투자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민간 부문 은퇴 및 기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칙을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미국 정부 기조로도 ESG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기업 중에서도 ESG를 통해 신규 사업기회의 발판으로 삼은 기업도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석유 기업인 ExxonMobil은 세계적인 정유기업으로 대표적인 탄소배출 기업이다. ExxonMobil은 탄소와 관련한 환경 ESG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작년 12월 탄소 포집·저장 기술 및 바이오 연료 기술에 투자하는 계획을 포함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술 협력을 통한 대기 중 탄소를 제거하는 자연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환경파괴의 이미지 탈피를 모색하여 ESG 경영을 통한 새로운 발걸음에 나서고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기업 사례로 애플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애플은 지난해 2030년까지 전 제조 공급망과 제품 주기에서 탄소 중립화를 달성하는 환경목표를 선언했다. 사라 췌들러 애플 친환경 및 공급망 혁신총괄자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 사내 사용 전기와 출장 및 임직원의 출퇴근 배출량을 포함하는 탄소발자국을 실시하고 있으며 44개국 캠퍼스, 애플스토어, 데이터센터에서는 100% 재생 가능한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애플은 탄소 중립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공조하여 에너지 효율성, 탄소 저감량을 높여 제품 생산 전환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8백여만 톤 감축하였다. 애플의 궁극적인 목표로 순환공급사슬로서 전제품에 대한 재활용 또는 재생가능한 소재화이다.

최근 출시된 맥북 에어는 재활용 비율이 40%이며 외장에는 100% 재생 알루미늄이 사용되었다고 전했다. 전 제품화에 대한 재생가능화는 환경부분에 있어서 기업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3) 중국

최근, 중국 정부도 ESG와 관련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다. Moon Ji-Young et al (2021)에 따르면 올해 3월 4일부터 11일간 열린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2020년과 비교해서 새롭게 언급된 단어로 ‘녹색’ (6회)과 ‘탄소’ (7회)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인 ‘14.5 계획’의 일환으로 녹색경제를 언급하며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감축의 종합 방침 실행으로서 에너지 총사용량과 강도에 대한 이중 관리 시스템 개선, 주요 산업의 에너지 절약 강화, 에너지 사용권 거래시장 조성을 진행하는 한편, 탄소배출 관련 프로젝트 진행의 일환으로 탄소 중립 달성에 대한 지도의견 제시, 국가 탄소 배출권 등록, 정산 및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에 대한 거래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복지의 일환으로 고용의 질적 향상 추진과 인적자본 강화,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정비 등과 같은 근무환경의 개선과 함께 안전한 생산관리 규정을 집행하는 등 사회(S)와 지배구조(G)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중국 기업들도 ESG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Han Hee-Ra(2021)에 따르면 볼륨버그가 뽑은 친환경 사업 기업인의 순자산에서 1위 일론머스크와 7위 프라트 인터스트리스의 안

쏘니 프라트 회장과 9위에 이름을 올린 에너콘의 알로이스 보벤 회장을 제외한 15위까지의 나머지 사업가 모두가 중국 출신임을 보았을 때 그 저력을 확인할 수 있다. 2위는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의 쟁위쥔 회장이며 CATL은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24.2%를 차지하며 세계 1위다. 3위는 태양광 제조사 론지솔라(LONGi Solar) 리쥘궈 회장, 4위는 중국 전기차업체인 비야디(BYD)의 왕환푸 회장, 5위는 리튬배터리 제조사 이브에너지의 류진청 회장, 6위는 전기차 업체인 샤오핑(Xpeng)의 허샤오핑 회장, 8위는 중국 전기차 기업인 니오(Nio)의 리빈 회장, 10위는 중국 응용소재업체인 항저우 퍼스트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의 린젠화 회장 등이 선정됐다. 11위부터 15위도 모두 중국 출신 기업인이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사례를 보면 중국의 허점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세계적인 가구업체인 이케아는 오는 2030년까지 전 공급망의 친환경 달성 및 탄소중립을 목표를 설정했다. 전 매장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 개발에 25억 유로(약 3조3500억)를 투자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 증명과 윤리적 원자재 조달을 위해 목재삼림 전문가를 고용하여 이를 감독하고 있는데, 최근 이케아는 중국의 원자재 공급처에 관련 문서 위조 사실을 발견하여 해당 업체와 계약 해지 및 판매 중단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2. 국내 ESG 사례

1)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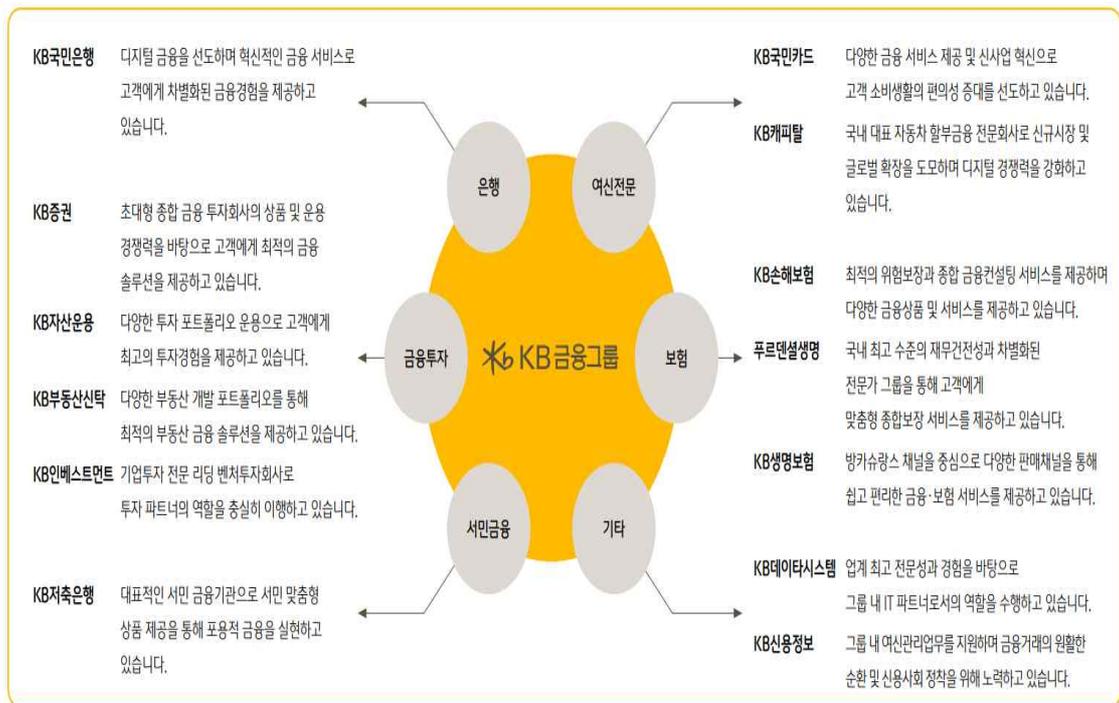
한국은 위에서 열거된 선진국보다는 다소 늦은 출발점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한국 정부는 이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ESG 경영에 관심이 있는 주요 기업 등을 대상으로 「K-ESG 지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서는 국내의 ESG 평가 필요성에 대한 업계 목소리를 바탕으로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통합된 ESG 지표 준비를 통해 평가방식과 평가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적합한 ESG 평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2월 K-ESG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평가형태의 난립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해당 K-ESG 지표에서는 정보공시(5개), 환경(17개), 사회(22개), 지배구조(17개)를 포함한 총 61개의 문항을 기초로 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국내외 주요지표와 높은 수준의 호환성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ESG 평가 대응능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정부는 2021년 8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 부처차원에서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각 부처별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7가지분야의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는 (1)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시 활성화, (2) 중소·중견기업 ESG 역량강화, (3) 공공부문의 ESG 경영선도, (4) ESG 채권·펀드 활성화, (5) 시장 자율규율체계구축, (6) 공공부문 ESG 투자 활성화, (7) ESG 정보 플랫폼 및 통계 구축 등이 있다.

한국정부는 국내 자체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에 그치지 않고 국제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외교부에서는 녹색경제 분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P4G(Part 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에 참여하고 있으며, P4G는 녹색경제와 관련된 5대 중점분야(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안건에서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 및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화 하고자 하는 협력체이다.

2) 대기업

(1) KB금융그룹



자료 : 2020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KB금융그룹은 금융권에서 주도적인 ESG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꾸준히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바, KB국민은행은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며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KB증권에서는 초대형 금융투자의 상품 및 운용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KB 자산운용에서는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투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KB카드와 KB캐피탈에서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및 신사업 혁신으로 고객 소비생활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있다.

2020 Performance Snapshot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고객수 3,552만명, 지역사회 공헌활동 2,073억원을 실현하고 있으며, 금융권 최초 전 계열사에서의 탈석탄금융을 선언하였다. ESG 경영전략으로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환경, 사회, 책임경영과 좋은 지배구조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 및 고객신뢰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목표로는 탄소중립달성(2040년), 환경·사회리스크 관리원칙 수립 및 환경경영 체제강화, 친환경투자, 대출확대를 통한 그린리더십 확보, 환경분야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을 통한 리더십 구축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추진 성과도 자세히 관리되고 있다.

최근 이슈인 코로나19 고객 지원에도 적극적인 바, 기업 및 소상공인 신규 대출 및 상환 유예(19조 3,880억원), 영세 가맹점주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 채권(Social Bond)를 발행하고, 코로나19 대응 5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를 발행하였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위한 2.5천억 규모의 채권(ESG Bond)를 발행하였다.

(2) SK 하이닉스: 전사적 차원의 ESG 경영

한국정부뿐 아니라 대기업들 또한 ESG 이슈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표적 선도기업은 SK그룹으로 평가된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2008년부터 매년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며 꾸준히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SK하이닉스의 Sustainability Report 2021(2021)에서는 ESG 경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사회 결정구조인 지속경영위원회에서 더 세부화한 ESG 경영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NET ZERO와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구조를 구성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COVID-19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구성원 안전을 위한 비상 대응 이행)와 재난과 같은 비상상황을 대비한 사업연속성계획(BCP)을 전 사업장에 걸쳐 수립하고 있다. 만약 기업에게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CEO가 BCP를 선언을 함으로써 BCP 조직으로 전환하여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여 정상화 활동을 수행한다. 이는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의 인증(ISO 22301)을 통해 자리를 잡으며 전사적 차원의 ESG 역량 강화를 이루었다.

하이닉스는 위와 같은 사내 ESG 생태계 구성과 함께 환경 관련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Green 2030' 을 선언하며 친환경 생산 체계 구축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Green 2030의 전략 중 하나로 반도체 공정과정에서 사용되는 수자원의 관리를 통한 정량적인 목표 이행을 통해 환경경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자원 관리의 세부전략으로는 다음의 3가지 관점에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취수량 증가율 감소로 생산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취수량비율도 증가율이 증가하지만 이러한 증가율의 감소를 통해 수자원 절감을 노력 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취수량 증가율이 2018년 대비 12% 증가한 반면 2019년 대비 2020년 취수량은 6% 수준까지 떨어졌다. 다음으로 재이용량 확대이다. 취수량 증가와 함께 이미 들어온 취수에 대한 재이용 또한 중요한 수자원 절감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데 2020년 국내 사업장에서만 총 2,693만 톤의 물을 재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 충족으로 공전 전후 사용된 수자원을 방류를 함에 있어 방류 기준을 충족시키며 하천 생태계의 보존을 이끌어 가고 있다.

(3) 삼성전자: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통한 ESG 경영

삼성전자는 2004년을 시작으로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일환으로 올해 A JOUR NEY TOWARDS A SUSTAINABLE FUTURE(2021)를 발간함으로써 ESG의 동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삼성전자의 주목할 만한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생태계 구축 노력이 있다. 삼성전자는 공급망을 세분화하여 함께 성장하는 공급망, 책임 있는 공급망, 환경친화적인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다. 먼저, 함께 성장하는 공급망으로 구매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급망과의 유기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했으며, 매년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기술, 품질, 대응력, 납기, 원가, 환경안전, 재무, 기업윤리 등의 항목을 중점으로 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공급망 경쟁력 유지와 취약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 책임 있는 공급망 관련 활동으로는 자체적인 행동규범을 작성하여 이를 협력회사가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가 선정한 8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자가평가 틀을 전 협력회사에 배포하여 이를 평가토록 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과 제 3자 검증을 통해 협력사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팔로우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환경 부분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1998년부터 국내 최초 폐전자제품 종합 재활용 센터인 ‘아산 리사이클링 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55개국에서 다양한 재활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모바일기기 전문 수리점인 ‘uBreakFix’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500여 개 지점에서 소비자 자체적으로 폐전자제품을 폐기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2018년 42만 톤의 폐전자제품 회수량이 2020년 51만 톤으로 늘기도 했으며 2020년까지 총 454만 톤의 폐전자제품이 회수되었다.

3) 중소기업

위에서 본 정부나 대기업 차원에서의 ESG 활동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대기업차원의 ESG 활동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 ESG 활동에는 정보의 불완정성과 비용적 부담과 같은 어려움이 상존한다. Lee Si-Yeon(2021)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한정된 정보만을 의존하여 지표를 산출하기에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Economist(2021)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ESG 평가에서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왔다. FOMEK(2021)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ESG 경영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업무 및 비용 증가(47.5%)’를 선정하기도 했다. KOMSE(2021a)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환경(E)분야(47.7%)의 부담감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ESG 경영 대응에 대해서는 “준비 됐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25.7%에 불과 했으며, “관련 준비계획이 없다” 또한 34.6%로 나오는 등 아직 중소기업 자체의 ESG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은 가용 가능한 정보의 불안정성과 함께 비용적 부담으로 인해서 ESG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몇몇 기업의 경우, 자신들만의 전략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오늘날 ESG 환경에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된 기업들도 존재한다. KOSME(2021a)에서 언급된 우수기업인 ‘지구인컴퍼니’는 식물성 고기의 개발과 유통을 아우르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으로서 대체

육 생산을 통해 탄소절감을 달성하고 있다. 더불어, “Let’s Zero” 캠페인에 일환으로 국내 농산물 사용을 통한 탄소발자국 줄이기, 100%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통해 기업 전반적으로 환경(E)과 관련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덕분에 ‘지구인컴퍼니’는 최근 2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포스코 협력사인 ‘세영기업’의 경우, 전사적 차원의 공유를 통해 ESG 경영 우수사례에 선정되었다. ‘세영기업’은 회사 그룹웨어를 통해 작업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여 임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안전보건문화를 정착하였다. 또한, 안전학교과정을 개설하여 현장중심의 안전보건활동을 임직원에게 제공하였다. ‘이삭토스트’는 가맹점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이삭토스트는 가맹점의 매출액과 상관없이 월 11만원 가량의 가맹비만 받고 있으며 식자재 공급과정에서의 물류 마진도 최소화 하고 있다. 또한, 기존 매장에서 반경 300m에는 신규점포를 내지 않고 일부 식자재의 경우 다른 곳에서 구입을 허락하는 등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삭토스트’는 이러한 ESG 경영의 결과로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12% 상승하는 등 구성원과의 협업을 통한 성장을 보여주었다.

3. 사례분석 결과 SWOT 분석

지금까지, 국내외 정부와 기업들의 ESG 활동사례를 보았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ESG는 일부 기업이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닌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기업을 가리지 않고 이 흐름에 탑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SWOT 분석하여 우리나라 ESG 경영 주체들의 강점과 약점, ESG경영환경의 기회와 위기를 살펴보고, 이후 ESG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상황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구성하고자 한다.

1) S(Strength): 정부와 대기업의 분전

먼저 강점(S)에 있어서 국내 정부 차원의 통합된 ESG 평가제도를 볼 수 있다. K-ESG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표준화되지 못한 평가지표에 의해서 야기된 기업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으며 국내 경영환경을 고려한다는 점도 지켜볼 만한 요소이다. K-ESG는 2022년 까지 규모별·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K-ESG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부분에서 언급했던 정보의 편이와 한정된 정보 공시로 기업의 평가가 실제보다 낮게 나올 우려를 지울 수 있다.

KOSME(2021b)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ESG 경영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 정책자금(53.3%), 진단·컨설팅(38.3%), 가이드라인 등 정보제공(29.7%)순으로 답하였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추후 K-ESG 도입은 통합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K-ESG를 기반으로 한 진단·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에게 보다 명확한 ESG 개선방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도 많은 중소기업들의 사례를 축적하여 이후 K-ESG 최종본을 구성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강점으로 대기업 차원에서의 분전이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사례를 보았을 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같은 활동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ESG 활동에 있어서 효율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외에도 현대차나 LG와 같은 유수의 기업들도 자신들의 ESG 경영을 꾸준히 하고 있다.

2) W(Weakness): 다소 늦은 출발점과 중소기업의 부진

그러나 우리나라가 해외와 비교해서 ESG 대응책을 강구하는 시점이 늦었다는 점이 단점(W)으로 지적된다. 유럽은 이미 법제화 카드를 내세우고 있으며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비교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 ESG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팔로워 입장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ESG 활동의 부진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국내외 대기업의 케이스를 보았을 때 대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ESG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적 문제와 정보 불충분함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ESG를 참여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환경(E)분야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스러운 분야로 평가된다.

3) O(Opportunity): 새로운 공급망 구축 기회

그럼에도 외부적인 요소를 보았을 때, 해외 기업들의 공급망 재정비 가능성을 통한 우리나라의 기회를 볼 수 있다. EU는 공급망 실사제도를 추진 중이며,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자신들의 ESG 경영을 위해서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기업들이 자신들의 공급망을 구성함에 있어서 ESG 지표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케아의 중국사례 같이 기존 공급망 또한 ESG 환경에서는 더 이상 그 자리를 장담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구축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새로운 대안 혹은 핵심시장으로 평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4) T(Threat): ESG 무역장벽화

반대로, 위협이 될 만한 요인으로 ESG의 무역장벽화가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유럽은 최근 ESG와 관련한 법률인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SFDR)’, ‘비재무정보보고 지침(NFRD)’, ‘분류체계 규정(Taxonomy)’, ‘공급망 실사 제도 (Due Diligence)’ 등에 대한 입법화를 준비하면서 ESG를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만들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 입법화가 완료된다면 기존의 무역장벽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TBT와 SPS와 같이 하나의 무역장벽으로서 ESG가 그 역할을 하며 유럽의 공급망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또한 존재 한다.

IV. 전략적 제언

1. SWOT 분석기반의 전략적 제언

1) (S-O) 정부와 대기업의 협력적 중소기업 ESG 지원: 정부의 K-ESG 도입과 대기업의

공급망 관리와 연계 세계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유럽과 비교하여 다소 늦게 ESG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했다. 그럼에도 국내 대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의 연장선으로 자신들만의 체계를 가지고 이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비용적인 부담으로 ESG 경영 활성화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대기업 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요한데, 강점(S) 부분에서 언급했던 정부 차원의 K-ESG 도입이 경영 활성화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K-ESG가 도입 된다면 그동안 난립되었던 평가 지표를 통합함으로써 비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후 추가적인 업종·규모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K-ESG 평가지표를 사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가지는 이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삼성전자의 사례인 공급망 관리사례와 같이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협력사 관리는 중소기업 ESG 활동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Im Hyo-Jin(2021)도 대기업이 그동안 축적해왔던 ESG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동반하여 ESG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중소기업보다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정부와 대기업들의 직·간접적인 관리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가지고 정보의 불균형과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ESG 경영을 하는 것보다 대기업을 거친 간접적인 ESG 활동은 ESG 무역장벽화와 같은 이슈에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

2) (W-T) 자체적인 중소기업의 ESG 활동추진: 중소기업 스스로의 방향성 제시

그러나 위와 같은 정부·기업이 관리해주는 ESG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판단하는데, 결국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위협 부분에서의 사례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된다면 탄력적인 대응이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나 기업이 도와주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ESG 경영이 요구된다. 아직 ESG 개념정립이 궤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방향성 설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우수사례를 통한 자체적인 활동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먼저, 환경(E)차원의 방향으로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및 유통과정 친환경화를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협업은 탄소절감과 같은 이슈 해소를 통한 환경관련 성과 제고를 야기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구인컴퍼니’는 기술과 전반적인 유통과정에서 탄소절감과 같은 친환경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기업은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과 유통과정의 친환경화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연구개발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인력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Kim Dong-Hong(2021)에 따르면 전북대학교는 탄소 소재 기업인 ‘수테크’를 지원해 ‘탄소 틈새 투수 블록’을 개발했다. 또한, 수테크는 전북대학교를

통해 제품개발과 디자인과 지역재생사업과 연계의 지원을 받는 등 대학과의 협업으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의 인력이 부족하고 비용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사회(S)차원 방향으로 전사적 차원의 근무환경 개선 프로그램 개설이다. 사회 주요 이슈 중 인적자본에 포함된 근무환경 건강 및 안전의 개선을 통한 근로자와의 관계 개선 중점의 초기 ESG 경영방향을 제시했다. ‘세영기업’은 전사적인 안전망 관리를 통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였다. 이는 근무환경의 개선을 일부 인원들만이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 차원의 안전진단을 통해 개선된 근무환경 변화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종업원 수가 대기업보다 적기 때문에 전사적 차원의 소통이 원활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근무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전사적소통망 구성을 통해 수시로 근무환경에 대한 진단을 한다면 우수한 사회적(S)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G)차원 방향은 자율성 보장을 통한 지배구조이다. 기업형태를 자율성 보장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구조로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이삭토스트’는 가맹점 점주들에게 최소한의 부담만을 부여하고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본사업장에서는 불리할 것만 같은 수익구조에서도 꾸준히 매출증가를 통해 문제를 종식시키고 있다. 이는 구성원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한편, 본사차원에서도 수익유지를 위해 자신들도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는 기업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지배구조(G)로서 하나의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

2.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접근방법론

실제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ESG 경영을 추진하는 지속가능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위원회는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보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독립 사외이사가 맡고, 사외이사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사회는 지속가능경영을 감독하고, 지속가능성을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내용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사회 독자적으로 충분히 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시간을 들여 의제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논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코로나 백신 개발로 친숙한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 GlaxoSmithKline)’은 2002년 지속가능성 위원회에 상응하는 ‘기업책임위원회’를 설치 하였다. 기업책임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독립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는 이사회와 별도로 연간 4-5회 개최되고 있다. 이때 집행층의 관계자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사외 전문가를 초빙한다.

시멘트 기업 ‘세멕스(Cemex)는 멕시코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3명의 이

사로 구성된 지속가능성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CEO 보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관련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위원회는 장단기 전략에 지속가능성 개발의 개념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사회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지속가능성 대책의 우선순위와 핵심평가항목(KPI)승인, 대책의 효과와 실행상황을 평가한다. 세덱스는 세계 대기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는 '로베코샘(RobecoSAM)' 이 발간하는 '지속가능성 연감' 에서 세계 최고 기업으로서 3년 연속 선정되기도 하였다.

세계적인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에는 지속가능성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비즈니스플랜' (Responsible Business Plan) 과 '책임비즈니스 협의회 (Responsible Business Council)' 가 설치 되어 있다. '책임비즈니스협의회' 는 책임비즈니스 플랜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이사회에 최상위에 있고, 사외이사가 플랜의 동향을 감독한다. 플랜은 이해관계자와 사회로부터 광범위한 신뢰를 얻기 위한 11항목의 판매와 마케팅 업무의 실적을 평가할 때 징계처분, 해직등 엄격한 내부행동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 사업을 개발하여 이해관계자와 회사가 장기적으로 공유가치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방침에 따라 내부상황을 외부에 공표하여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사외이사가 책임사업을 감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스포츠 용품 업체인 나이키(Nike)는 이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장기전략을 논의하는 기업이다.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중요한 전략,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경영과제와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2012년에 이사회에서 지명된 3명 이상의 많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이노베이션, 상품개발, 제조, 구매, 오퍼레이션 등 광범위한 사업활동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NVO, Novo Nordisk)는 선구적인 연차보고서를 작성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차 보고서는 IIRC의 통합프레임워크(framework)의 이념에 따라 작성하고 있으며, 통합보고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노보 노디스크의 기업행동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까다로운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오해를 풀어가는 행동을 중시한다. 이해관계자와 갈등에 놓이면 기업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많은 기업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다고 말하지만, 이해관계자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가치 감사팀' 이라는 조직은 전 세계에서 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행동지침을 준수하는지 감사한다. 회사가 중시하는 '환경, 사회, 재무의 지속가능성 배려를 준수하는지 감사한다. 감사팀은 일 년동안에 세계 3,5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에 관한 행동지침을 이해하고 행동하는지 청취한다.

글로벌 식품 업체 유니레버(Unilever) 는 다양한 환경과 사회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영관점을 유지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위해 분기 보고서를 없애고, 예상이익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임원의 보수제도도 장기적 실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최근 일본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과 이에 관한 다양한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스투어드십 코드를 개정하여 기관투자자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 TOPIX 100기업 중에 80% 이상이 지속가능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 사업 업체인 옴론(Omron)은 지속가능경영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회사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핵심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와 집행임원의 중장기 실적과 연동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핵심관리지표는 옴론의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동된 하위 목표로 설정하고, 제3기관이 그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객관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기업도 있다. 일본기업 유니스는 사외이사의 다양한 스킬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논의할 때 객관적 시사점을 얻고 있다. 이 회사는 2018년 ESG 평가의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MSCI 저팬 ESG Select Leaders Index'의 구성종목에 선정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일본기업의 위원회는 사장과 CEO등 집행측의 집행측의 자문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집행측을 감독하는 지속가능성 위원회는 거의 없다. 일부 기업의 이사회는 지속가능성의 과제를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 논의에 그치고 있다.

2020년말부터 유럽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기업 지배구조'라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은 이미 2018년부터 추진한 EU 지속가능한 파이낸스의 실행계획에서 논의된 것이다. 자금을 받는 기업의 경영자에게 단기적인 수익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배구조에 지속가능성 관점을 반영한 대책이다.

구체적으로 회사법과 지배구조의 EU규제구조를 강화하여 기업이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가치창조에 맞춰 경영을 지원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더욱 배려하고, 직접적인 사업활동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사회와 인권에 관련된 지속가능성 문제를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기업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기업이념에 따라 장기적 경영관점을 갖고 지속가능 경영을 실행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경영자와 이사회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항상 의식하는 지속가능성 경영을 지향해야 한다. 지속 가능 경영을 감독, 감시하는 이사회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은 영국의 금융보고협의회가 지적한 "이사회가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경영자가 적극 실천하는지를 항상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표3> 글로벌 기업의 이사회 다양성 추진 방향

사업전략에 적합한 인재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외국인재와 글로벌 경험이 있는 인재 영입
스킬 매트릭스 활용	-이사의 스킬 매트릭스를 활용하고, 사업전략과 연계하여 그 경험과 스킬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함
경영과제에 대응	-디지털 혁신 등 경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스킬 활용
다양성 방침 수립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사 선정 프로세스 공개
관점의 다양성	-지속적 성장과 이노베이션을 위해 성·국제성·연령의 다양화 추진
금융서비스 경험자 활용	-장래 ESG 경영환경에서 투자자와 인게이지먼트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전문가 활용

자료 : MUFJ신탁은행, ESG 경영과 자본주의 혁신(이형종, 송양민)

3. 국내 기업환경에 대한 제언

현재 국제사회는 단기적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자본시장으로 이행하고 있다. 기업의 단기적 이익 추구는 환경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반성의 결과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지금까지 기업은 환경과 사회를 희생시키며 주주를 위한 이익추구에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단기적 이익추구의 폐해를 4분기 보고의 횡포행위라고 비난했다.

대부분의 기업은 단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의 목표라면 보통 4분기별 매출, 연간 실적, 길게는 3~5년 후의 달성목표를 떠올릴 것이다.

이런 단기적 목표와 달리 SDGs는 적어도 10년 후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에서 10년동안에 몇 번 이고 경영진이 교체될 수도 있다. 2~3년내의 재직기간중에 실적을 보여주어야 하는 기업풍토에서 장기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회사가 어디를 향해 갈지 대내외에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효과적인 전략이다

최근 소비자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도 기업의 SDGs경영에 힘을 실고 있다. 지속가능한 패션과 환경과 사회를 배려한 윤리적 소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친환경 자연소재를 사용하는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동향을 포착하고 매출을 늘리는 기업이 나오고 있다. 2018년 일본의 온

라인쇼핑몰 라쿠텐은 어스몰(Earth Mall)이라는 새로운 쇼핑몰을 개설했다.과는 제품은 지속가능한 어업에 관련된 ASC인증, MSC인증, 지속가능한 삼림관리에 관련된 FSC인증, 유기농 섬유로 만든 제품GOTS인증을 취득한 상품과 소수 전문가가 지속가능성으로 인증한 상품만을 팔고 있다.

라쿠텐이 만든 어스몰의 유통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중이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소비자는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는 SDGs달성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변화에서 기업이 성장기회를 찾아 더욱 적극적인 경영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영시스템은 경쟁우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경영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투자대상으로서 매력을 높이고 기업의 지속적 성장력과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다.바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이 그 핵심 열쇠다.

한국은 1997년 IMF를 계기로 낙후된 기업 지배 구조를 개혁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기업은 집행경영진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사외이사제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등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대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기업 지배구조의 법률적 요건은 어느정도 갖추었지만, 20년 이상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사회가 실질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우리나라 대기업 이사회는 감시와 견제기능을 아직 충분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진이 결정한 내부거래 안건의 대부분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등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ESG 경영의 확산으로 기업의 투명하고 건강한 지배구조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 기업의 지배구조는 장기적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지금까지 한국기업이 수동적으로 지배구조를 운영해 왔다면, 앞으로 공격적인 지배구조 체제로 바꾸어야한다. 지배구조 체제를 강화하여 경영자의 마인드를 전향적으로 바꾸고, 지속적 성장과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높이는 공격적 지배구조 체제로 전환해야한다. 해외 기관 투자자는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은 ESG 요소중 에서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심이 많다.한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기관 가운데 82%는 투자판단에서 지배구조(G)를 가장 중시하는 ESG항목으로 꼽았다. 환경(13%)과 사회(5%) 항목보다 지배구조에 압도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2020 연간 ESG 매니저 조사)

기업에 이사회 의 지배구조 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다면 장기적 성장에 필요한 환경과 사회 측면도 논의하고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현장에서 환경과 사회 항목의 지속가능성 대책을 수립해도 이를 논의하고 판단하는 적절한 지배구조 체제가 없다면 실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투자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다.

<표4> 글로벌 투자기관이 중시하는 ESG항목

구 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2018년	5%	4%	91%
2019년	9%	5%	86%
2020년	13%	5%	82%

자료 : 러셀(2020 연간 ESG 매니저 조사)

많은 투자자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주목하고, 기업의 개선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지배구조의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기업을 건전하게 경영하고 부정 위험을 회피한다고 해서 기업의 좋은 이미지가 외부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요인도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ESG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다. 이런 요인 때문에 환경과 사회 요소에 비해 지배구조 개선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은 환경과 사회 요소의 개선에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없어도 지배구조는 경영자의 결단만 내리면 쉽게 개선 할 수 있다. ESG 평가에 대처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면 먼저 외부 ESG 평가 기관의 평가 항목을 살펴봐야 한다.

지배구조에 비해 환경과 사회분야의 대책은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따라서 기업은 비교적 많은 시간이 걸리는 환경,사회분야는 중장기적 대책으로 추진하고, 지배구조 분야에서 조기에 성과를 내고 외부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이해관계자에게 일찍 호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다.

현재 세계에 수많은 ESG 평가기관이 있다. ESG 평가의 통일된 평가기준은 없고 회사마다 평가 기준도 다르다. 따라서 어느 한 ESG 평가기관의 평가기준만으로 기업의 ESG 대책을 판단할 수는 없다. 다양한 평가기관의 평가항목을 비교해 보고 핵심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5> 주요 ESG 평가기관의 지배구조 평가 항목

<p>MSCI</p>	<p>-이사회 구성 : 감사위원회 독립성, 이사회 출석률, 보수위원회 독립성, 다양성(성별), 독립된 이사회 의장 -보수 -오너십과 지배 : 상호출자, 1주 1의결권, 포이즌필 등 -회계 리스크 : 한정적 감사의견 -기타 기업윤리, 공평한 경쟁, 조세회피, 독직과 정치불안, 재무 구조의 안정성</p>
<p>리퍼니티브</p>	<p>-경영진 : 조직체계, 독립성, 다양성, 위원회, 보수 -주주 : 주주의 권리, 적매적 매수에 대한 -CSR전략, ESG 보고 및 투명성</p>
<p>FTSE</p>	<p>-부패방지, 기업 지배구조, 위험관리, 조세의 투명성</p>
<p>서스테인리블리스트</p>	<p>-방침과 대책 : 뇌물수수에 대한 대책, 내부고발 프로그램, 이사회 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의장과 CEO의 분리, ESG 보고 기준 -실적 : 뇌물수수 사건, 사업윤리 관련 사건, 회계와 조세관련 사건 등</p>

자료 : 넷코리서치센터(2016), ESG 경영과 자본주의 혁신(이형종, 송양민)

IV.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지금까지 국내외 ESG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고, SWOT분석을 통해 기업들의 ESG 경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유럽은 이전부터 환경문제 등에 관심이 많아 ESG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었으며, 연합차원에서도 적극적인 ESG 관련 정책 및 법 제정을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ESG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기조변화와 함께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ESG 중요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중국최대정치행사에서 ESG에 대한 언급을 통해 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세계는 자신들만의 ESG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비해 다소 늦은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ESG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우리나라가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ESG 환경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들은 ESG가 떠오르기 이전부터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CSR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ESG 경영을 함에 있어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정부는 ESG 성과평가방식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K-ESG의 도입을 통해 지표 표준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과 정부는 ESG 대응에 있어서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ESG를 논의한 주체들이 대부분 정부와 대기업이었기에 중소기업의 ESG 리스크는 아직까지 존재한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한정적인 정보의 의존과 자금적 여유가 있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K-ESG 도입에 따른 우선권부여와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공급망 관리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을 유도할 수 있지만, 해외 ESG의 무역장벽 조치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있어서는 여전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ESG 경영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에서 살펴보았던 국내기업 ESG 우수사례를 통해 국내기업의 ESG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R&D개발과 유통공급망의 친환경화를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전개해 나가는 활동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기업의 규모를 고려한 전사적 차원의 소통으로 근무환경개선프로그램을 제시했고, 마지막으로 구성원에게 자율성을 주어 신뢰감 형성을 통한 지배구조 정립을 제시했다. 이후, ESG 개념정립과 함께 활발한 경영 활성화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국내기업만의 우수하면서도 자생적인 경영방법이 도출될 것이다. 앞으로 국내기업 ESG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국내 국내기업 ESG 활동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된다면 세계적으로 복잡하게 설정된 가치사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국내 국내기업 ESG 경영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기업마다 ESG를 도입하고 나아가 국가의 체질 변화를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중이다. 또 각각의 국가는 앞으로의 산업조건에 맞는 정책을 기획하고, 이를 조직마다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국가차원에서 기업의 ESG 실력을 향상하는 일이 필요할까? 바로 코로나19 이후의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거라 말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의 의견에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전 세계의 기후변화 위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앞으로 우리는 이전과 같은 경제환경,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자본시장이 먼저 ESG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도 비즈니스 조건이 달라짐을 받아들이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업은 준법정신을 갖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며,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반기업 정서가 정책과 제도로 실현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정부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변하고 있다는 점은 기업 호감도 상승과 연결된다. 과거 이윤 추구에 서 최근에는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 지고 있다. 기업의 국가경제 기여와 일자리 창출은 넓은 의미의 ESG경영으로 볼수 있다. 이 같은 ESG경영 확대는 기업 호감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과거에는 창출된 이윤 일부를 착한 일에 썼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윤창출과정부터 바르게 기업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논문연구를 통해 ESG경영은 결국 기업을 균형있게 오래도록 운영하며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나아가 전 세계의 환경과 사회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드는 주체는 바로 세상의 모든 기업과 조직이라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어느 기업이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지배구조 투명성의 문제를 일으키는지가 국제적으로 인증되는 지표들로 평가되어 그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설익은 사회공헌 사업으로 회사 이미지를 분칠하고 안 좋은 부분을 덮을 수 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국내 기업의 신인도와 글로벌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글로벌 ESG 기준에서 우리 기업, 우리 경제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무역통상, 탄소세, 탄소관세, 온실가스 측정과 보고, 기타 환경오염, 중소기업 애로점, 임금 형평성, 양성 평등, 인권, 노사관계, 임원 보수, 공정경쟁, 협력사 관계 등 매우 광범위한 정책 영역에서의 범부처적 조율이 요구된다. 작년에 중국이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시도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도입한 것은 대표적 예이다.

정부와 공공부문도 ESG 모범을 보여야 한다. 민간기업들에 탄소배출제로의 국가목표(NDC)를 달성하고, 글로벌 ESG 공시를 준비하라고 하려면 정부가 우선 앞장서는 모습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공공기관 ESG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ESG 측정, 공시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환경,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중소기업이 고루 참여해야 한다. ESG 회계공시의 준비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글로벌 ESG 공시와 이를 위한 기

업의 ESG 체질과 역량 개선, 이를 위한 금융투자, 정책 지원에 대한 민간의 의견이 종합적 관점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글로벌 무대에서 통하는 전문성이 있어야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글로벌 ESG 공시기준 기관들과의 국제적 교류를 이끌어야 하고, ESG 전문가들과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숙의 과정이 있어야 결국 좋은 성적이 가능할 것이다.

2025년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산 기준 2조원 이상인 상장사부터 ESG에 대해 어떠한 목표와 활동계획이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효된다. 3년 남았는데 한국기업 중에서는 114개 기업만이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 상장사의 10% 규모에 불과하며 그나마 앞서가는 기업조차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하면 그 내용이 기본적,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 시사점

1) 외국사례에 대한 시사점

각국의 정부 ESG 사례를 보았을 때, 유럽연합의 선제적이고 높은 수준의 관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ESG와 관련하여 발 빠른 법제화 준비로 영역 내 기업뿐만 아니라, EU와 관련한 모든 공급사슬에 있어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여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선두에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출범에 따른 기조 변화로 ESG 노선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중국의 경우도, 국가 회의에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부분에 대한 강조를 함으로써 ESG에 대한 대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해외사례조사결과 본 연구에서는 ESG가 일부 선진국에 국한되지 않은 범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ESG는 각국 정부의 움직임에 그치지 않고 있으며, 기업들 또한 이에 대비하는 모습을 전 세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Apple의 사례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 또한 이를 중요하게 인식함을 볼 수 있었으며, ExxonMobil의 경우를 통해 ESG활동이 하나의 전환점 구실을 하여 기업의 성공을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ESG 활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차 없이 가치사슬에서 배제될 수 있음 또한 확인했다. 이제 ESG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범세계적인 활동으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ESG 활동은 기업에게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국내경영 사례에 대한 시사점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국내 ESG 경영사례를 살펴보았다. 비록 시작은 타 국가에 비해 늦었지만, 정부는 K-ESG 도입과 P4G 개최를 진행하며 내부의 혼란을 정리하고 국제사회의 모델 유지로 국가 안팎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기존 지속가능경영의 연장선으로 국제적인 움직임에 맞추어 자신들의 특징을 가진 대응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위원회와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지배구조(G)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삼성전자

의 경우 공급망 생태계 관리를 통한 사회(S)활동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위 기업 모두 기업 특성에 맞춘 환경(E)활동을 기반으로 각자 특징을 가진 사회, 지배구조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KB금융그룹은 2020년 ‘ESG 그린웨이브’ 라는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전 계열사가 ‘ESG 이행원칙’ 을 선언하고, ESG 위원회를 설립했다. 그룹 13개 계열사의 ESG 담당부서가 참여하여 선진국 은행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참고하고, 국제 가이드라인 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여러 부담으로 인해 그 참여도가 다소 낮음을 볼 수 있었다. 일부 기업의 경우는 ESG를 통해 자신들의 성장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은 ESG 활동에 있어서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부분이 아직 정보의 부족과 비용부담으로 활동에 있어 소극적인 것이 확인된다. 때문에 국내 ESG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가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책

신지영(2022), 지금 당장 ESG, 서울:천그루숲, 205-245

이형중·송양민(2021), ESG 경영과 자본주의 혁신, 서울:(주)북이십일 21세기북스, 28-121

보고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0)

2020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20)

임형철·정무섭(2021), 국내외 ESG 사례를 통해 본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방안 「아태
비즈니스연구」 12(4), 179-192

신문

동아일보 2022.5.2.

매일경제 2022.11.17

감사의 글

“시작이 반이다.”

“가장 늦다고 생각될때가 가장 빠른 시기이다”

언제부터인가 내가슴속에서 메아리 쳐지는 내안의 소리이다. 그동안 현업에서 몸과 마음을 올인하여야 했던 핑계로 뒤쳐져야 했던 학업을 다시 하려고 할 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남들처럼 한템포 쉬면서 그동안 못했던 운동과 취미생활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겨도 될 텐데, 학업을 시작하기가 망설여진 것은 잠깐이었고 또다른 나에게 도전하는 현실에 감사했다.

어느덧 마지막 학기!!!

논문 마무리를 하고 나니 논문 작성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생각이 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연초 논문 작성이 시작될 때부터 신문에서 ESG 관련 기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스크랩해준 나의 사랑스런 아내 “이 해 경” 님.

서툰 컴퓨터로 작성이 어려울 때 마다 마다않고 달려와 컴퓨터 작업을 도와준 나의 사랑스런 조카 “심석빈”, 멀리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도와준 “심민창”, “김화자”, “심성탁”, “김미숙”, “김미경”, “김영희”, “이철웅”,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신 “고영희 교수님과 이민호 교수님”

이분들의 도움이 없인 이 논문은 작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철학자 니체는 저서 “우상의 황혼”을 통해 “인생의 사관학교에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길고 지루했던 역병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2023년, 이제는 우리가 더 강해질 차례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한 미래를 기원한다.